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

—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근린공동체를 중심으로 —

김영경** · 이정향***

A Study on the Social Capital of Marriage Immigrant Women : focused on the neighbourhood community of Filipino immigrant women*

Kim, Yeong Kyeong** · Lee, Jung Hyang***

요약: 본 연구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 특성을 근린지구 수준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연구의 주 대상은 한국의 대도시와 중소도시, 촌락 등에 거주하는 필리핀 출신 결혼이주여성들이며 그들이 주로 참여하는 근린공동체- 학교, 성당공동체-에서 생산되는 사회자본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여 개인적 특성과 공동체의 특성(결속력, 동질성 등)에 따른 사회자본의 특성에 대해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학교공동체와 성당공동체에서 이주자의 개인적 특성 가운데 이주사회에서의 거주기간과 사회자본 간 관련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성당공동체는 거주기간과 사회자본 '관계'요소 간 정(+)적인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이주 후 기간이 증가할수록 성당공동체에서의 관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공동체에서는 거주기간과 사회자본 '신뢰'요소가 부(-)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어 거주기간이 길수록 신뢰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질성과 결속력, 사회자본의 양에서도 성당공동체가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자본 '관계'는 공동체의 동질성과 더 밀접하며 '규범'은 공동체의 결속력과 밀접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두 공동체에서 모두 의사결정과 가치추구 공유 및 규칙 준수 등의 '규범' 요소가 구성원 간의 '관계'요소와 유사하며, 만족도와 정서적 도움 및 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가 개인문제를 토론하고 참여하는 '정치'와 근접한다는 공통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연구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초국가적 행태가 발생하는 회로로서의 성당공동체의 상징성으로, 성당공동체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의 고유한 집단적 문화와 개인적 욕구가 사회자본의 생산과 맞물리는 영역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의 공동체와 사회자본의 특성에서 이주자로서의 개인적 특성과 함께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집단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family reunion 등의 사회·문화적 특질이 주는 영향 또한 간과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민족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성과 사회자본이 우리 사회와의 상호문화성을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주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으며 나아가 '민족 단위의 공동체와 그 사회자본 연구'는 향후 더 다양한 공동체를 대상으로 다층의 공간 스케일로 확장,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근린공동체, 사회자본, 필리핀 친족주의, 결속력(응집도), 동질성

Abstract: This study is to explain social capital characteristics of Filipino immigrant women at the level of neighborhood. This research targeted Filipino immigrant women in the metropolis, small town and rural area in Korea to find out the relevance of individual proper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and social capital of neighboring communities- school community, cathedral community, etc- through measurement of the participants' recognition.

This study reveals that differences exi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ngth of residence and social capital in the school community and the catholic church community.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length of residence and political factors in the catholic church community, thereby having a better relationship with longer period of stay, while length of residence and confidence show a negative trend in the school community, leading to less confidence. The catholic church community holds a dominant position in homogeneity, cohesion, and the amount of social capital. According to the findings, social capital 'relation' is more closely related to homogeneity of the community, 'norms' to cohesion.

'Relation and norms' and 'confidence and politics' factors are recognized similarly in both communities, thus resulting in the recognition that decision making within the community, the share of value, and observance of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NRF-2010-413-B00023)

** 대구가톨릭대학교 지리교육과 강사(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chungrha@cu.ac.kr)

*** 대구가톨릭대학교 다문화연구소 연구교수(Research Professor, Institute for Multicultural Studie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porte83@naver.com)

social norms approximate a friendly relationship among members, and satisfaction level, emotional support, and confidence among members approach politics that members can talk about their personal matters.

It is noted in the research process that the symbolism of the cathedral community as a transnational circuit behavior occurs where collective culture and personal desires of Filipino immigrant women were combined with production of social capital.

Filipino immigrant women's awareness of community and social capital appearing in the cathedral community show that not only residence, along with the cultural identity of Filipino immigrant women, but also collective soci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such as 'family reunion' can not be overlooked.

In particular, at this time when discussion and debate on the interculturalism over multiculturalism is heating up, communal spirit and social capital based on the ethnic identity are important in that they can be a crucial path to the cross-cultural interaction with our society, therefore, a study on the social capital of the ethnic community needs to be encouraged and extended to more diverse communities, to the space of the multilayered scale.

Key Words : Filipino immigrant women, neighbourhood community, social capital, personal characteristics, Philippine kinship, cohesion, social homogeneity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000년 이후 베트남, 필리핀, 러시아,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여성결혼이주여성의 출신국가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여성의 이주화(feminization of immigration)라는 상황적 전개에서 기인되는 경제, 제도, 인종, 계급, 젠더 등의 사회적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Lorraine Young, 2004).

특히 한국에서 최근 10여 년 간 관찰되는 결혼이주의 대다수가 경제,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의 한국남성과 자본이나 기술력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단신의 동남아시아 결혼이주여성의 결합(김동엽, 2010)인 경우의 비중이 높아, 결혼입국 후 동남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제3세계 출신의 여성에 대한 강한 차별현상이 지속되는 등 우리 사회의 사회·문화적 변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문적, 정책적 관심이 있어 왔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 역시 1980년대 종교적 연계로 결혼 이주를 시작한 이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경로로 한국으로의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이주 1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켜 국내에서 국제결혼이주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연구의 주제로 꾸준히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취학연령이 된 2세들의 사회적응 문제를 다루는 연구도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특정 송출국가와 이주자 사회가 지니는

사회·문화적 함의와 사회자본 등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논의, 인구의 공간 이동과 신자유주의라는 주제로 초국가적 행태에 관한 거시적 차원의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주로 인류학적, 사회학적으로 다루어지는 기존의 연구가 많은 사례 중심의 접근을 하여 다양한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정책적 함의를 가져오고 있으나, 근린과 같은 실질적 공간 규모에서 수행되는 공동체 활동의 사회자본 형성에 의미의 표출과 연관된 가치체계가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밝히는 연구는 매우 저조하다.

지역사회 가운데서도 특히 근린지구(동네)는 결혼이주여성의 삶과 밀착된 장소인 동시에 외부와 소통하는 연결통로로서 사회·문화적응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회적, 지리적 환경이다. 근린지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은 집합적 기억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런 과정에 자신들의 상황을 스스로 극복하기 위해 사회자본을 생산하고 유지하게 된다. 즉 근린 수준의 공간에서 생산되는 사회자본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문화적 적응과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Putnam 2000, 이정향·김영경, 2013)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은 실제 근린공동체 활동에서 여러 영향 요인에 의해 제약과 고립의 과정을 경험(김영란, 이용균, 2007)하는 것이 사실이어서 그러한 영향 요인의 작용과 공동체 내의 사회자본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근린지구 내에서의 안착해야 하는 이주자사회의 열거를 이해하고 갈등이나 부적응 등의 제반문제 해소 방안으로 접근하기 위해 적절하고 필요하다. 공동체 활동과

사회자본 생산에 영향 요인으로 이주자 개인적 특성 및 그들이 인식하는 공동체 특성 등을 들 수 있는데, 이주자 개인적 특성에서는 원문화(原文化)의 특질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필리핀은 혈통관계를 구성하지 않아도 인간관계의 자원이자 집단 구성의 원리로 작동하는 특유의 친족원리¹⁾ 혹은 가족주의를 보유하는 지역으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한 기제로 작동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자본의 사회·정치적 영향이 사회 구성원들 간의 문화적 격차를 초월하며 사회·문화적 적응과도 정(+)의 관계가 있음을 구명한 유사 주제의 선행 연구들의 논점을 근거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근린 수준에서 생산되는 사회자본의 특성을 이주자 개인의 특성 및 그들이 인식하는 근린공동체의 특성과 관련지어 구명하고 나아가 상위 규모의 사회자본의 특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소로서의 제반 기초 자료 구축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1) 사회자본의 개념

사회자본이라는 용어는 1835년 프랑스 정치학자 토큐빌(Alexis de Tocqueville)이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저서를 통해 소개한 ‘상호 필요성에 의하여,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기 위해 서로 결속하는 미국 사회의 경향’과 그에 대한 해석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기 시작했다(Wilson, 1997, 746; 서순탁, 2002). 그의 저서는 사회자본의 요소에 대한 최초의 논의로서, 커뮤니티 정신(community spirit), 시민참여(civic engagement), 공공재 관리에 대한 개인의 책무(stewardship)와 수탁자의 직무(trusteeship), 서로 알아보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감정, 소속감(sense of belonging) 등을 커뮤니티 수준에서의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있다(Wilson, 1997, 746; 서순탁, 2002).

사회자본 개념의 이론적 바탕은 주로 1980년대 서구사회의 연구에서 기원하며 현재와 같이 활발한 연구대상으로는 대체로 Bourdieu와 Coleman, 그리고 Putnam의 연구 저작물에서 부각된다.

Bourdieu(1986)는 사회자본이란 용어를 한 지역

사회에서 회원제(membership)를 통해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추가 이익과 기회 창출의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때 사회자본이란 사회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사회네트워크에 내포된 자원을 의미하였다. Coleman(1988, 98)은 사회자본을 주민들의 사회적 연대(social ties)로부터 나타나는 개인적 자원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자본이 금융자본(financial capital)이나 인간의 두뇌 자본(human capital)과는 달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Coleman에 있어 사회자본은 모든 종류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자본이 개인들이나 물리적인 도구 속에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구조 속에 내재한다는 점에서 다른 자본과는 다르다고 보는 견해이다.

Putnam(1993, 2000)은 집합적 행동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10세기에 걸친 이탈리아 북부와 남부의 대조적인 사회 구조 특성에 주목했다. 그는 수평조직들을 통해 상호부조와 시민참여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온 북부가 사회 및 정치적 관계가 수직적으로 구조화된 남부보다 훨씬 더 높은 경제 및 제도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어떤 마을, 지역 또는 국가의 구성원들이나 시민들이 사회적 상호작용, 공유된 규범, 그리고 신뢰 등과 같은 사회자본을 축적해왔다면, 이러한 자원들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갈등 및 집합적 행동의 문제를 좀 더 쉽고 평화스럽게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관점에서 Putnam(1993, p.167)은 사회자본을, “신뢰, 규범 및 네트워크와 같이 조정된 행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효율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사회조직의 특징들”로 정의한다. Putnam의 사회자본의 개념이 갖는 또한 가지 특징은 사회자본을 집합적 행동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 집합체들(collectives)이 가지는 자원들로 언급한 것이다.

Coleman이 사회자본과 관련하여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을 다루고 있는 반면, Putnam의 경우 수평적 조직에 대한 참여, 신뢰와 상호부조의 일반화된 규범 등과 같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관계의 몇 가지 측면에만 선택적으로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사회자본의 개념을

표 1. 지역 기반 사회자본 유형

범 주	학 자
신뢰 및 규범	Fukuyama (1995)
관계(네트워크)	Bourdieu (1986) Coleman (1990) Putnam (2000)
정치 참여(사회 참여)	Putnam (2000) Tocqueville (2003)

보다 쉽게 조작하고 측정 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tolle, 2000).

Bourdieu, Coleman, Putnam 이 외에도 사회적자본의 개념화와 이론 형성에 많은 학자들이 참여하였으며 학자들의 연구관심이나 목적에 따라 사회자본의 다양한 측면과 요소들이 강조되어 왔다(한상일, 2008) (표 1).

사회자본의 유형은 다양한 관점과 기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데, 사회자본 형성주체의 성격 및 위계를 지표로 개인-집단, 사적-공적, 일반적-지역기반 사회자본으로 구분되며, 사회자본이 가지는 효능에 따라 기능적-규범적, 연계형-결속형 사회자본으로 구분되기도 한다(김승남 등, 2011). 이러한 공동체의 유형 가운데 가족 등 동질적 내부적 집단으로부터 형성되는 결속형 사회자본(또는 강한 결속)과 사회적, 이질적 외부적 집단으로부터 형성되는 연계형 사회자본(또는 약한 결속)(Putnam, 2000; Kleinhans *et al.*, 2007)은 자주 거론되는 유형 중 하나이다(그림 1).

(2) 근린지구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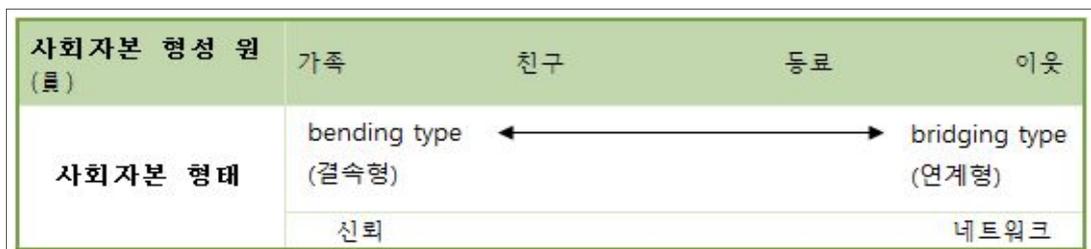
John Carter and Trever Jones(1989, 169)는 근린 지구 동동체를 “가구들 간의 친밀한 네트워크

로 짜여 있는 사회적 상호 작용의 공간으로서, 구성원은 대부분 서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공통의 사회활동, 정보교환, 상호부조, 사회 참여, 공동된 정체성을 공유한다.”고 정의한다. 또한 Selznick (1992)에 따르면 공동체는 역사성, 정체성, 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과 호혜, 다원성, 자율성, 참여, 통합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지리학자들은 이러한 정의에 근린지구(neighborhood)를 비롯한 다층의 사회·공간적 차원을 적용하고 있다(Johnston *et al.*, 2000). 실제로 공동체에 관한 지리적 연구는 종종 근린 공동체와 혼용되기도 한다. 전통적 근린 공동체의 발생과 유지에 기여하는 조건으로는 근접성(proximity), 영역성(territory), 사회적 동질성(social homogeneity), 시간(time)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공동체의 특성을 규정하고 유형화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Hoggart, 1957; Gerald Suttles, 1972; Pacione, 1983).

근접성은 지리적 거리를 말하는 것으로 인접한 근린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마을 축제, 육아, 종교적 의례 등의 능동적 활동은 대부분 근린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유지되고 있음은 이러한 공동체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영역성은 자기 주변에서의 안전감과 안락함, 정체성을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공유된 공간과 상호 정체성에 대한 대중적 이해(해석)를 가지게 되는 데서 연유한다. 이러한 영역감은 반드시 행정 경계, 지리적 경계와 일치하지 않으며 공동체의 결속력(응집강도) 여부와 결구되는데, 결속력의 측정 지표로 패시언(Pacione, 1983)은 이웃에 대한 애착, 우정, 근린단체에의 참여, 근린 시설의 이용, 거주 의 지속성 등을 들고 있다.

사회적 동질성은 공동체의 발전에 유리한 방향



(Putnam, 2000; Kleinhans, 2007을 참고하여 연구자 재구성)

그림 1. 사회자본 형성 원(員)과 사회자본 형태

으로 공통의 계급정체성과 특정한 생활방식을 유지하려는 욕망으로 일종의 소속감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는데, 노동계급 공동체 연구 등을 통해 기술되어 왔다(Hoggart, 195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내용을 원용, 기준 지표를 선정하여 지리적 기준이 적용되는 근린공동체에 대해, 영역성 및 동질성 등의 공동체의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사회자본 형성 요인

사회자본은 다른 유형의 인적자본과는 달리 개인의 노력과 투자만을 통해 획득되지 않는다(Fukuyama, 1995). 사회자본은 사람들 사이의 일상적이고 대면적인 상호작용으로부터 창출되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자본은 개인 또는 사회구조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다(Bullen and Onyx, 2005: 7). 사회자본은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s)과 사회적 관계(social relationships)에 의해 형성되거나 포착되고, 그 관계 속에서 배태된다(난 린, 2008).

그러나 Putnam(2000)은 세대, 교육 등에 의해 달라지는 개인의 경험이나 소득, 성별 등과 같은 일반적인 개인 속성(내부적 요인)들이 사회자본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Putnam(2000)은 그 중에서도 사회자본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육과 연령(세대)을 들었으며 이는 높은 교육 수준이 거의 모든 유형의 사회자본

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들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Freeman, 2001).

이와 같은 주장을 근거로 사회자본의 영향 요인 및 구성요소, 그리고 사회자본의 결과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요약 될 수 있다.

실제 사회자본은 개인적, 가족적, 지역적, 제도적 특성 및 문화적 구조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Newton, 2001). 각 요소들은 독립적으로 또 상호 작용에 의해 사회자본의 형태와 양에 관여되고 다시 그러한 영향 요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인자로 개인의 연령, 성별, 건강과 같은 특성 등을 들 수 있으며 교육수준, 고용여부, 주택소유여부 등과 같은 개인의 자원적 특성 역시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개인의 성격적 특성은 그 사람의 유아 및 아동 시절 가정환경과 가족에서의 경험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러한 성격적 특성은 일반화된 신뢰 및 상호부조와 같은 규범, 그리고 자발적 결사체와 같은 네트워크에 대한 참여 성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Stolle, 2000; Newton, 2001).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공간 이동과 수반된 이주사회에서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생활에서 새롭게 획득한 특성-가령 이주사회에서 거주기간이 늘어남에 따 사회적 관계가 개선되고, 추가적인 교육으로 인적 자본이 획득되거나 취업활동을 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향상되는 등 - 등을 사회적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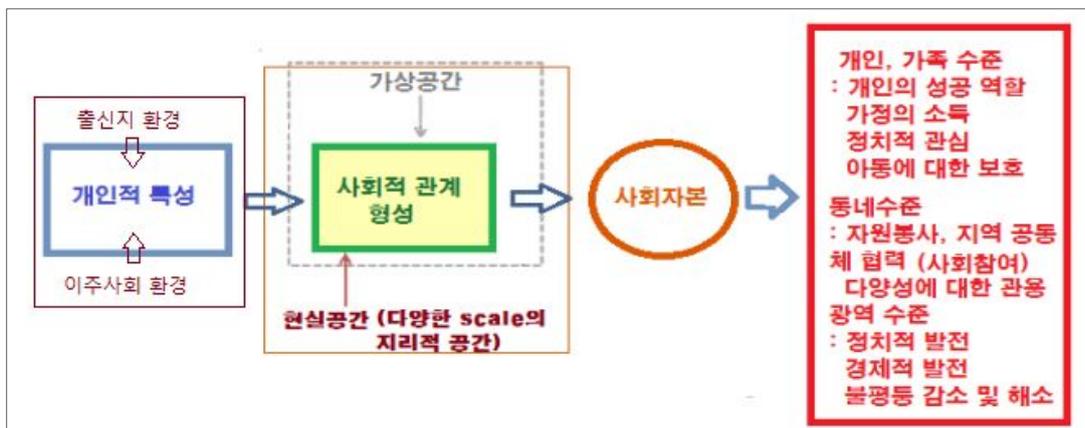


그림 2. 사회자본 형성 과정과 영향

결망과 사회자본 형성의 영향 요소로 규정하였다.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연결망에 관한 연구에서 밝힌 내용 중 흥미로운 것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가족 이외에도 이질적인 집단의 구성원(한국인, 타 이주민 친구)들과 어느 정도의 연결망을 형성하고 있으나 자국인 중심의 폐쇄적 사회연결망에 의존성이 높고 한국사회에서의 고립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김영란, 이용균, 2007). 이러한 기존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우선 결혼이주 가족 및 가족 이외의 연결망, 또는 동질 집단, 비동질적인 집단과의 사회적 상호 작용에서 이 여성들의 삶의 기회나 삶의 질에 어떤 차별적 영향을 미치는지, 이들의 연결망이 행위전략이나 삶의 의미, 문화적 정체성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이다(황정미, 2010).

사회자본에 대한 또 다른 영향 요소로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제도적 특성을 첨가할 수 있으나 가정, 동네 또는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의 지리적 스케일과 가상공간에서의 자발적 사회적 관계로부터 발현되는 네트워크만을 구조적인 사회자본으로 간주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한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근린(동네) 수준의 공간에서 형성되는 결혼 이주여성의 사회자본의 특성을 그 이주자로서의 개인적 특성 및 그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특성과 관련하여 구명하고 그 결과를 예측해 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연구내용

1) 연구 모형

사회자본의 형성과 영향요인에 대한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근린이라는 공간이주여성의 특성과 공동체 특성에 따라 어떤 사회자본을 양산하는가를 구명하고자 몇 가지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주로 참여하는 근린 공동체인 학교공동체와 성당공동체는 공동체로서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가? 둘째, 두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사회자본은 어떤 특성을 가지며 각 사회자본 요소와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셋째, 사회자본의 각 요소는 서로 어떤 의미로 인식되며 공동체의 특성과 어떻게 관련되고 있는가? 등이다.

2) 연구의 대상과 범위

본 연구에서의 주 연구 대상은 대구광역시 8개의 동과 경북 경산시 3개 동, 의성군, 고령군, 칠곡군의 5개 마을에 거주하는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주여성 5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 등 직접 조사 기간은 2013년 1월에서 2014년 3월까지이다.

3) 연구내용 및 분석

본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은 1차적 수집 방법으로 설문과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설문은 공동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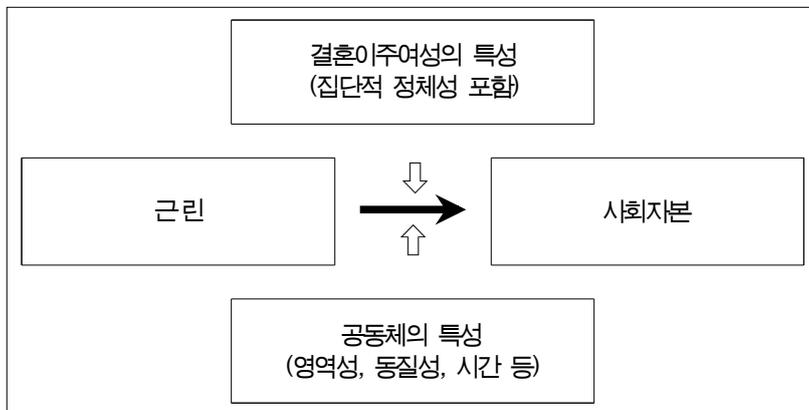


그림 3. 연구모형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속성 (N=54)

특성	구 분	빈도 (명)	비율 (%)	특성	구 분	빈도 (명)	비율 (%)
귀환의사 (N=54)	있다	54	100	거주지 (N=54)	대도시	12	23.1
	없다	0	0		중소도시	9	17.3
거주기간 (N=54)	1년 미만	3	5.6	소득 (N=54)	촌락	31	59.6
	1~2년	14	25.9		695,477원 이하	0	0
	2~3년	7	13		695,477~1,057,409원	3	5.6
	3~4년	5	9.3		1,057,409~1,307,138원	8	14.8
	4~5년	8	14.8		1,307,138~1,545,250원	12	22.2
	5~6년	6	11.1		1,545,250~1,770,830원	10	18.5
	6~7년	5	9.3		1,770,830~2,015,960원	9	16.7
	7~14년	6	11.1		2,015,960~2,313,145원	5	9.3
	14년 이상	0	0		2,313,145~2,672,480원	5	9.3
결혼 매개 (N=54)	가족	18	33.3	자녀수 (N=54)	2,672,480~3,341,864원	2	3.7
	친구	33	61.1		3,341,864원 이상	0	0
	동네 이웃	0	0		없음	9	16.6
	직장동료	0	0		1명	28	51.9
	SNS	0	0		2명	17	31.5
	중개업소	0	0		4명	0	0
근린공동체 참여빈도 (N=54)	매일	0	0	근린공동체 참여시간 (N=54)	4명 이상	0	0
	일주일 3번 이상	3	5.6		30분 이내	0	0
	일주일에 한 번	44	81.5		30분~1시간	7	13
	한 달에 한 번	2	3.7		1시간~2시간	38	70.4
	기타	0	0		2시간~3시간	4	7.4
본인직업 (N=54)	농/임/어/축산업	31	57.4	남편직업 (N=54)	3시간~4시간	0	0
	사무직	1	1.9		4시간 이상	0	0
	기술직	2	3.7		농/임/어/축산업	31	57.4
	판매/서비스직	14	25.9		사무직	0	0
	노동/일용직	3	5.6		기술직	0	0
	기타	3	5.6		판매/서비스직	8	14.8
			노동/일용직	9	16.7		
			기타	6	11.1		

사회적 자본 측정을 위한 통합설문지(Integrated Questionnaire for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를 연구에 적합하도록 재구성하였으며 표본은 대구시와 대구 이 외의 촌락지역, 대구시 인근 중소도시에서 거주하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54명을 대상으로 하여 임의 표본추출 방식으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공동체 참여 빈도, 공동체 유형 등에 대한 공동체 참여 특성과 개인적 일반 속성 질문 문항 그리고 공동체 사회자본 특성의 3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공동체 참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참여 시간, 참여 빈도, 참여하는 공동체 성격과 유형 등에 관해 질문하였으며

사회자본 특성 파악을 위해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 규정을 위한 지표(변수)를 신뢰, 규범 네트워크, 정치 참여의 네 가지 그 핵심적 지표(요소)를 변수로 설정하고 각 변수를 분리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신뢰(trust) 및 연대(solidarity)는 World Bank (2003)과 Warren and Warren(1977)의 지표를 원용하여 공동체의 이용성, 만족감, 연대의 강도, 교류, 상호 도움의 여부, 활동의 제약 여부, 공동요소인 소속감(정체성) 등을 적용하고 규범(norms)은 가치 추구에 대한 동의 여부, 공유된 의미체계, 네트워크(network) 부분은 공동체 노드(node) 자체의 의사결정의 특징과 상호 관계성을, 정치적

참여(political participation)는 개인문제의 표현, 사회적 문제에 대한 토로, 시민운동 참여 등을 조작하여 구성하여 11 개의 문항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동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근접성과 시간을 제외한 두 개의 지표 영역성과 동질성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영역성은 결혼이주여성들의 소속감, 외부와의 소통 등의 결속력 정도를 측정하고 동질성은 공통의 계급과 문화 정체성과 생활방식에 관한 욕구의 정도로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행위자가 부여하는 주관적 의미와 전략적 선택 행위 등 설문 내용의 보완하기 위해 면접방법을 동원하였다.

설문 조사방법은 직접조사에 의한 자기평가기입 방식(self-administration method)을 적용하였고 조사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하여 SPSS 21.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공동체 별 사회자본 속성들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ALSCAL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3.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자본 특성

1) 개인적 특성과 사회자본

본 연구 대상인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에서의 거주 기간이 대부분 7년 이하로 2년 이하가 31.5%, 2년 이상 7년 이하가 57.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자녀수는 한 명인 경우가 51.9%로 가장 많으며 2명의 자녀를 가진 경우가 31.5%이고 자녀를 가지지 않은 경우가 16.7%이다. 이들은 대부분(54명 가운데 51명) 일주일에 한번은 근린에 위치한 성당공동체에서 활동을 하며 이와 함

계 학교공동체에도 동시에 참여하는 여성은 16명이었다.

공동체 활동의 참여 빈도는 일주일에 한번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한 시간에서 두 시간의 참여 시간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성당 공동체에 참여하는 다수의 경우를 잘 보여주고 있으며 학교공동체는 대체로 특별한 경우 인위적 제도(급식 당번 등) 등에 의해 한 달에 한번 참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공동체는 사회자본에 대한 중요도에서 평균 1.96으로 3.34인 성당공동체에 대한 인식 정도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두 공동체에서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나는 사회자본 요소는 '신뢰'이나 특히 성당 공동체에서 더욱 현저하여, 강한 신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성당공동체 활동에서 현저한 '신뢰' 요소는 성당공동체 활동에서의 만족감, 연대의 강도, 참여와 교류, 상호 도움의 여부, 소속감(정체성) 등에서 긍정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필리핀 여성들의 성당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잘 반영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자본 간 관련성을 보면 한국거주기간과 성당 공동체의 정치 요소가 유의미하게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으나 학교 공동체에서는 오히려 신뢰와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이 나타나고 있다($r=.270, p<.05; r=-.302, p<.05$). 이는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성당 공동체의 정치 참여는 양적 증가를 보이는 반면 학교 공동체에서의 신뢰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가구 월 소득에 대한 성당 공동체에서의 관계 요소가 유의미하게 정적인 상관이 나타나($r=.285, p<.05$) 가구 월 소득이 높을수록

표 3. 사회자본 요소의 신뢰도 분석

공동체	성당 공동체				학교 공동체			
	신뢰	관계	규범	정치	신뢰	관계	규범	정치
필리핀	.985	.928	.978	.943	.982	.963	.984	.945

표 4. 공동체별 사회자본의 인식 정도

공동체	학 교				성 당			
	신뢰	관계	규범	정치	신뢰	관계	규범	정치
평균치	2.32	2.05	1.91	1.57	4.17	3.10	3.82	2.26

표 5. 개인적 특성과 사회자본 간 상관성

지역	변수	성 당				학교 공동체			
		신뢰	관계	규범	정치	신뢰	관계	규범	정치
필리핀	거주지	-.157	-.306*	-.139	.078	.988	.282	.382	.684
	한국거주기간	.072	-.038	.054	.270*	-.302*	-.179	-.192	-.094
	본인직업	.205	.246	.179	-.036	.109	.209	.116	.042
	남편직업	.118	.194	.086	-.100	.144	.255	.135	.087
	가구 월 소득	.211	.285*	.242	.033	-.067	.088	.022	.034
	자녀수	.074	-.086	-.040	.055	-.134	-.012	-.009	.080

* $p < .05$, ** $p < .01$

성당 공동체에서의 관계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에 의해 수집된 사회자본 요소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였다(표 3).

2) 공동체 특성과 사회자본

두 가지 형태(학교, 성당 공동체)의 근린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소속감, 외부와의 소통에 대한 인식 정도를 결속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공통의 계급 정체성과 생활방식에 관한 욕구를 동질성에 대한 지표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두 공동체는 영역성과 동질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교 공동체는 낮은 소속감과 높은 외부와의 개방성으로 영역성(2.24)과 동질성(1.36)이 매우 저조한 특성을 보였으며 대조적으로 성당 공동체에서는 영역성(4.57)과 동질성(4.23)이 모두 높게 나타나 대조를 이루고 있다. 공동체가 가지는 영역성 및 동질성의 정도와 사회자본 요소의 관련성을 함께 나타내기 위하여 영역성(결속력, 응집력)과 동질성의 측정값 그리고 두 개 그룹의 MDS 분석에서 제시된 언어들 간의 지각된 유사성 정도 측정 좌표를 사용하여 지각도(perceptual map)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측정수준은 ‘구간척도’로 설정하여 입력 데이터 행렬 간에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 ‘유클리디언 거리’를 선택하고, 숫자들을 거리 행렬 내에서 비교하는 ‘행렬’조건으로 2차원 분석을 실시하였다.

계산을 반복함에 따라 스트레스 값이 개선되는데, 결과의 적합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반복에 따른 스트레스 개선 값이 0.0001보다 작을 때 반복과정을 중지하도록 설정하였고, 많은 반복을 통해

결과의 적합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최소 S-스트레스 수렴기준을 0.001로 설정하였다.

스트레스 값은 MDS 모형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분산의 불일치 정도로서 대상들 간의 실제거리와 추정된 거리사이의 오차를 의미한다. MDS의 계산은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화(최소제곱 단조회기; least squares monotone regression - 가우스, 뉴턴 등)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얻어진다. 스트레스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추정거리와 실제거리가 완전히 일치하면 0이 된다. 그러므로 스트레스 값이 작을수록 추정거리의 적합도는 높으며, Kruskal이 적합도에 대하여 제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표 6).

두 공동체의 사회자본 8개 요소 간의 유사성 정도 분석에서 반복실행(iteration)이 3회 이루어졌으며, 스트레스 개선 값이 3회에 0.00060로서 0.001보다 낮아 실행이 완료되었다.

분석결과 스트레스 값은 0.04719로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나왔고, 회귀분석에서의 R²과 유사한 개념으로서 MDS로 변환된 자료가 전

표 6. Kruskal의 스트레스 값

스트레스 값	적합도 평가
0.2 이상	매우 나쁘다
0.2	나쁘다
0.1	보통이다
0.05	좋다
0.025	매우 좋다
0	완벽하다

표 7. 8개 사회자본 요소의 설명력

Iteration	S-stress	Improvement
1	.04137	
2	.03483	.00644
3	.03433	.00060

Stress = .04719 RSQ = .99220

체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결정계수(RSQ) 또한 0.99220을 나타내고 있어 모형의 설명력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표 7).

그림 4는 다 차원 상에서 사회자본들 간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모형의 적합도가 좋고 설명력이 높게 측정이 되어 개체들 간의 거리와 각 차원에 대한 분석은 의미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응답자들의 사회자본 요소에 대해 분석해 본 결과, 학교공동체와 성당공동체에 따라 인지하는 유사성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사회자본 요소의 유사성에 대한 공간 별 특징을 보면 1 차원에서는 성당 공동체의 네 개 사회자본 요소가 결속력이 비교적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규범과 관계, 정치, 신뢰 순으로 결속력의 강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학교공동체는 사회자본 요소가 모두 결속력이 낮은 공간에 위치하고

표 8. 공동체 사회자본 요소에 대한 MDS

Stimulus Name		1차원	2차원
성당	신뢰	.8791	-.2069
	관계	1.3930	.4267
	규범	2.2860	.1830
	정치	1.3718	-.2071
학교	신뢰	-1.3088	-.2608
	관계	-1.4273	-.0008
	규범	-1.1184	-.0034
	정치	-1.3155	-.4890

있어 성당공동체의 양상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동질성에 대한 좌표로서 2차원의 경우는 학교공동체에 비해 성당공동체의 사회자본 요소의 동질성이 높으며 그 중 특히 관계와 규범이 다른 두 개의 요소에 비해 상회하고 있다.

공동체 별로 특성을 보면, 학교 공동체의 경우 사회자본의 각 요소의 결속력과 동질성이 낮으며 사회자본의 요소가 전반적으로 근접하게 위치할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사회자본 요소들이 서로 경합적이며 공동체의 결속과 동질성 추구에 유사한 존재로 관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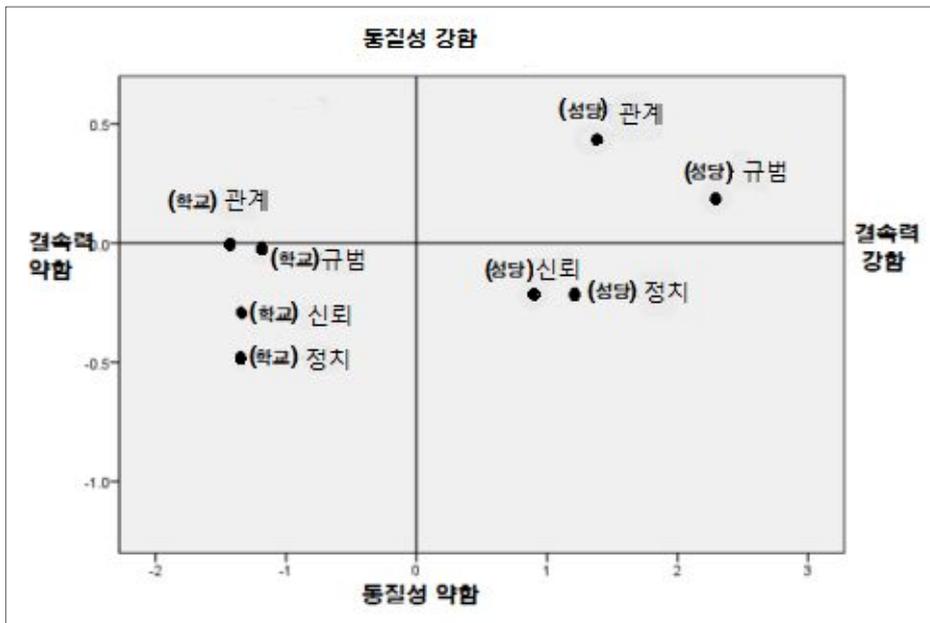


그림 4. 공동체의 특성과 사회자본 요소

수 있다. 특히 학교 구성원과의 친밀, 민주적 의사 결정에 대한 ‘관계’와 ‘규범’이 유사성을 가지며 학교 공동체 활동에서의 만족도, 정서적 도움 및 교육 제도에 대한 수용 혹은 인정 즉 ‘신뢰’가 학교 공동체 내에서의 교육과 관련된 개별문제를 표현하거나 학교 문제에 참여하는 ‘정치’와 근접하는 자본으로 인식되고 있다.

성당 공동체에서는 관계 및 규범 요소가 하나의 차원 내에서 인식되고 신뢰 요소는 정치적 참여와 같은 공간에 위치하여 대인간 혹은 제도에 대한 ‘신뢰’ 요소가 집합행동을 위한 권위와 관련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규범’과 ‘관계’ 요소는 결속력과 동질성에서 모두 높게 인식되는 사회자본 요소로 표현되고 있어서 종교 공동체의 결속력이 필리핀 고유의 가족주의 안에서 발휘되고, 이는 규범 요소와 밀접하다는 것을 보이는 부분이다. ‘규범’과 ‘관계’ 요소는 요소 간 거리가 다소 떨어져 간격을 두고 분포하고 있어 각 요소에 대한 유사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관계’ 즉 네트워크 형성은 구성원 간 동질성을 높이는 데에, 그리고 ‘규범’은 결속력을 높이는 사회자본으로 역할 한다고 인식되며 ‘신뢰’와 ‘정치’는 매우 유사한 성질의 요소로서 ‘관계’와 ‘규범’ 요소에 비해 결속도와 동질성에는 작용하는 정도가 낮은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으로의 이주 유형 가운데 하나인 결혼이주의 현상에서 배태되는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자본 특성을 근린공동체라는 장소공동체를 중심으로 구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린 공동체의 사회자본이 공동체 특성 특히 결속력(응집성), 동질성 정도 및 이주자 개인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가설에 의한 연구 모형을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의 개인적 특성은 이주자라는 상황을 적용하여 거주기간, 현 거주지, 소득, 본인 직업, 남편의 직업, 자녀수, 공동체 참여 빈도, 시간, 본국으로의 귀환의사 유무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근린지구에서의 근린 공동체 활동을 통해 빈도 높게 인지된 두 개의 공동체를 선정하여 영향 변수로 규정하였다. 모든 자

료 수집은 개별적 연구자가 직접 수집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통계적 방법과 질적 방법을 병행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첫째, 근린지구에서 결혼이주여성들의 공동체 참여는 대체로 활발하며 특히 종교 공동체의 활동은 매우 정기적이며 빈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내부 결속력이 매우 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필리핀이주여성들의 사회자본 기저부에 위치하는 family reunion, 즉 지역성을 넘어선 ‘친족주의’라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집단을 형성하려는 문화적 정체성이 잘 나타나는 대목이며 가톨릭과 필리핀 고유의 가족주의가 성당이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배태되고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학교공동체는 낮은 결속력, 비 동질성, 비정기적, 인위적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사회자본의 양 역시 낮아 가족주의적 방어기제가 작용하는 공동체임을 알 수 있다.

둘째, 결혼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과 사회자본 간 관련성을 보면 한국거주기간과 성당 공동체의 정치 요소가 유의미하게 정적인 상관성을 가지며 학교 공동체에서는 거주기간과 신뢰는 오히려 유의미한 부적인 상관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국 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성당공동체의 사회적 참여는 양적 증가를 보이는 반면 학교 공동체에서의 신뢰는 감소하는 것을 보여 주목되는 부분이다.

셋째, 두 가지 형태(학교, 성당 공동체)의 근린 공동체는 영역성과 동질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성당공동체는 높은 소속감과 낮은 연계성으로 높은 결속력과 동질성을 나타내는 반면 학교공동체는 낮은 소속감과 높은 외부와의 연계성으로 낮은 결속력(응집 강도)과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 이 역시 가족주의를 근거로 하는 불안문화의 방어기제가 학교공동체 인식에 반영된 결과로 유추 해석된다.

넷째, 두 개 공동체의 사회자본에 대하여 영역성, 동질성, 유사성에 대한 전체적인 양상을 살펴 보면 성당공동체에서 네 개 사회자본 요소가 결속력과 동질성이 강한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규범과 관계 요소는 결속력과 동질성이 모두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규범과 관계는 종교 공동체의 결속력과 동질성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사회자본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두 개의 공동체에서 모두 ‘관계와 규범’, ‘신뢰와 정치’가 유사한 요소로 인식되는 특성을 보여 공동체의 활동에 따라 공동체 내의 의사결정과 가치추구 공유 및 규범 준수 등이 구성원들 간의 바람직한 관계와 접근되며, 만족도와 정서적 도움 및 제도에 대한 구성원들의 ‘신뢰’가 개인문제를 토론하고 참여하는 ‘정치’와 유사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학교공동체의 경우 사회자본의 각 요소가 전반적으로 근접하여 위치함으로써 공동체의 특성에 함께 관여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당공동체에서는 학교 공동체에 비해 요소 간 거리가 다소 멀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포하고 있어 공동체의 특성에 작용하는 사회자본의 각 요소의 유사성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근린이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내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이주사회에서 새로이 획득하는 속성 못지않게 집단적 문화정체성이 사회자본 형성에 큰 영향 요인이 되며 아울러 결혼이주여성이 집단적으로 보유하는 사회·문화적 특질이 주는 의미를 간과할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당공동체는 필리핀사회의 양면적 친족원리가 투영되는 상징적 기제로서 우리 사회와의 상호문화성을 공유하고 실천 가능한 근린공동체로 해석된다. 따라서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고 다층의 공간과 결합되는 과정에서 이주자의 원(原) 문화는 그들의 이주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볼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방향의 민족 단위 공동체의 사회자본 연구가 다양한 민족을 대상으로 다층의 공간스케일에서 장려되고 발전되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주

- 1) 김민정, 2002, 필리핀 친족 원리는 혈족과 양면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여기서 양면성은 부계를 보완하거나 부계의 규범과는 별도의 친족을 구성하는 원리를 일컫는다. 양면성은 그 자체로는 ‘집단’의 구성원리가 되지 못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회관계 전반에서 친족관계가 중요한 자원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즉 혈통집단을 구성하지 않는 공식적

집단으로서 친족집단은 또 하나의 인간관계의 주요 자원이자 집단구성 원리로 작동된다. 필리핀 사회의 특징으로 호명되는 양면적 친족원리는 대부모제나 후원체계, 친족정치 등과 같은 필리핀사회의 주요 특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조건이다.

문헌

- 김동엽, 2010,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초국가적 행태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20(2), 31-72.
- 김승남·김희철·안건혁, 2009 “유류가격이 통근거리 및 통근시간에 미치는 영향: 가격탄력성의 소득계층별 차이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44(7), 153-169.
- 김남선·김남희, 2000, 지역공동체와 사회자본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개발학술지, 10(2), 1-30.
- 김일철, 1986, 『사회구조와 사회행위론』, 전예원.
- 김민정, 2002, 필리핀 친족의 양면성과 ‘집단’ 만들기, 비교문화연구, 8(2), 3-36.
- 난 린, 2008, 사회자본. 김동윤·오소윤 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박경환(역), 2009, 사회지리학, 논형, 서울, (Valentine Gill, 2001, *Social Geographies*, Prentice Hall.)
- 박희, 2005, 필리핀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자본’의 문제, 부산대학교 논집, 5(1) (2002.6), 123-158.
- 서순탁, 2001, 사회자본접근방법의 정책적 함의,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2001년도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1(0), 99-109.
- 신란희, 2005,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 일, 그리고 정체성, 우즈베키스탄과 필리핀여성의 생애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성호, 광현근, 2003, 동네 수준의 사회자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방정부연구 6(4) (2002. 겨울), 205-230.
- 이재열(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06.5, 23-49.
- 이정향, 김영경, 2013, 한국 이주노동자의 “사이버 공동체”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2), 324-339.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2004.

- 한국지방자치학회, 2012, 동계국제학술대회 논문집 2012.
- 항상일, 2008, 사회적 자본과 공동체 참여의 관계에 관한 국제 비교,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 49-75.
- 황정미, 2010, 결혼이주 여성의 사회연결망과 행위전략의 다양성, 연결망의 유형화와 질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26(4) (2010년), 1-38.
- Bourdieu, P.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 (ed.), *Handbook of Theory and Reach for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CT, Greenwood press.
- Coleman, James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S95-S120.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NY, Simon and Schuster.
- Freeman, L., 2001. The Effects of Sprawl on Neighborhood Social ties,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67(1), 69-77.
- Hoggart, R., 1957, *The Uses OF Literacy, Aspects of Working Class Life*, Chatto & Windus, London.
- Johnston, R. J., Gregory, D., Pratt, G. and Watts, M.(eds), 2000,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Blackwell, Oxford.
- Kleinhans, R, Priemus. H. and Engbersen, G., 2007. Understanding Social Capital in Recently Restructured Urban Neighbourhood, Two Case Studies in Rotterdam, *Urban Studies*, 44(5-6), 1069-1091.
- Landry, Charles, 2000, *The Creative City, A Toolkit for Urban Innovators*, Earthscan Publications.
- Lorraine Young , 2004, Journeys to the street, the complex migration geographies of Ugandan street children, *Geoforum*, 35(4) July 2004, 471-488.
- Newton, Kenneth. Trust, Social Capital, Civil Society, and Democracy.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22(2), 201-214.
- Onyx Jenny and Paul Bullen, 2000, "Measuring Social Capital in five Communities."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6(1), 23-42.
- Pacione, M., 1983, 'Neighborhood communities in the modern city, some evidence from Glasgow', *Scottish Geographical Magazine*, 99, 169-181.
- Putnam, Robert D with Roberto Leonardi and Raffaella Y. Nanetti.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l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 Sara Curran, 2002, Migration, Social Capital, and the Environment, Considering Migrant Selectivity and Networks in Relation to Coastal Ecosystem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 89-125.
- Selznick, P., 1992, *The Moral Commonwealth, Social Theory and the Promise of Communi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CA.
- Stolle, Dietlind ,2000, *Social Capital - A New Research Agenda? Toward an Attitudinal Approach*. paper presented for the ECPR Workshop 13 Voluntary.
- Suttles, G., 1972, *The Social Construction of Communitie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 Warren, R. B., and Warren, D. I., 1977, *The Neighbourhood Organizer's Handbook*, Uiveristy of Notre Dame Press, Indiana.

(접수: 2014.04.26, 수정: 2014.05.08, 채택: 2014.05.13)